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6일 (음력 10월 19일) 수요일

민주당 단체장 평가 대상자 제외·거부에 '희비'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애초 평가 대상자로 분류됐던 인사가 제외되거나 이에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갑점 페널티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역 단체장을 평가해 하위 20%에 포함되는 대상자에 대해 갑점 '페널티'를 도입하기로 하고 평가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부 현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를 거부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애초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 8명의 광역단체장이 평가 대상이었지만,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7명으로 평가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8명의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 1명을 가려낼 예정이었는데 갑점 대상자로 유력했던 권 시장이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다른 단체장으로 '폭탄'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단체장의 희비가 엇

‘낙마’ 대전시장 제외 광역단체장 7명 경쟁으로

‘평가 거부’ 광주북구청장·구례군수에 ‘희색’

하위 20% 포함 현역 대상자 선정 영향 미칠 듯

갈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총리행으로 결국 지역에서는 윤정현 광주시장이 페널티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광주와 전남지역 3선 단체장 가운데 평가를 거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선의 송광운 광주북구청장과 서기봉 전남 구례군수는 민주당 현역 평가를 거부했다. 이들은 향후 정치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평가를 받지 않지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않아 최하위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돼 평가를 받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경쟁자 1명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희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송 청장과 같이 인구 50만명 이하 자치구에서 경쟁하는 단체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인데, 하위 20% 6명 중 1명은 송 청장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기봉 군수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단체장들 역시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평가 방침 선언 이후 입당한 단체장의 경우 평가를 받지 않아 향후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이다.

대표적으로 강진원 강진군수는 10월13일(민주당 제시한 기준일)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그 이전에 입당한 김성 장흥군수는 평가를 받는다.

뒤늦게 입당이 허용돼 평가를 받지 않는 강 군수는 공천심사과정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등 민주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은 공천심사에서 10% 경선에서 10% 갑점을 각각 받아 사실상 20% 갑점 효과가 있어 공천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면서 "평가 대상자가 당초와 달라지면서 일부 현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1000점 만점에 ▲직무활동 350점(리더십 105 + 소통역량 105 + 재정역량 70 + 도덕성 35 + 기부활동 17.5 + 수상실적 17.5점) ▲공약 이행평가 200점(대표 공약 5개씩, 정량 정성평가 각 20점) ▲여론조사 300점(인물경쟁력 210 + 직무평가 90점) ▲자치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주춘성 기자



충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품격을 갖춰달라는 당내 요구에 "품격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지난 달 29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보수'를 대표하는 리더라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홍 대표는 "그대 나 품격 없다. 그런데 정치인 중 가장 품격이 높았던 이회창 전 총재와 품격이 낮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대선을 치러 누가 이겼느냐 논 전 대통령 이겼다고 되받아쳤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근 홍대표에 대해 '사당화', '막말' 등의 비판을 했던 나경원·한선교 의원을 겨냥해 '쌍신아닌 의원들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관련인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당 대표로서 품격을...



품격으로 정치하나



정치 회화화 그만 하시길...

서은홍 기자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양식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수부 선정...3개 마을 24어가 종사



완도군은 5일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 해양수산부 지정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주식 김 양식어업은 얇은 수심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광합성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노출 관리하는 방식

이다. 현재 완도군 고금면 청화리, 가교리, 봉명리 3개 마을 24어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다.

완도 지주식 김 양식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으며 특히 1930년대에는 완도가 전국 김 양식어가의 34.9%를 차지했다.

최근들어 김 양식은 대부분 부류식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어가를 중심으로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억원이 지주식 김 양식어가에 지원돼 정기개발이나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지난 10월 말 현재 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국가중요어업유산에는 지난 2015년 제주 해녀어업을 제1호로, 보성 뽕배어업(제2호), 남해 죽방렴(제3호), 신안 갯벌 전일어업(제4호) 등이 지정돼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광주 30개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받아

신규 인증 20개...지난해비 5배 ↑

올해 광주지역 30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결과 신규 20개, 연장 5개, 재인증 5개 등 총 30개 기업·기관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20개로 지난해 4개에 비해 5배 증가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유연근무제도·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월1일 전국 최초로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행정부서에 배치하고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해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직장교육,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애리 시 일가정양립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련 컨설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가족친화인증 지원과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 무엇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 유기물의 광합성력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 비핵심지역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